

## 한시를 통해 본 의암 유인석의 反開化 논리와 華夷的 서양인식 연구

송 기 섭\*

<目次>

- |                                      |                       |
|--------------------------------------|-----------------------|
| I. 서론                                | III. 反開化 논리와 화이적 서양인식 |
| II. 동아시아의 개방, 그리고<br>조선과 일본의 서양인식 차이 | IV. 결론                |

<국문 초록>

일본은 에도시대 쇄국정책으로 서구열강의 개항요구에 반대하였으나 미국과 1854년 미·일화친조약,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으로, 조선도 병인년과 신미년의 두 양요에 강력히 항거하여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1875년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朝日守護條規에 의해 개항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항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이 斥外의 입장은 같았으나 개방 후 개화의 입장과 서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선은 華夷적 차원에서 서양을 인식하여 유학자 중 대부분이 中華 중심의 문화를 崇好하고 華夷的 思考로 인하여 쇄국과 전수의 반개화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에 운양호 사건 이전에는 개항여부에 대하여 戰守派와 交流派, 운양호 사건 이후에는 개화에 있어 守舊派와 開化派의 갈등으로 甲論乙駁하였지만 戰守입장인 수구파의 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양이에 대항으로 맞섰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과 달리, 메이지정권이 들어서면서 서양의

\* 선문대학교 / sks4423@naver.com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하여 모아진 자본을 토대로 군사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華夷論의 차원에서 서양을 인식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화서 이항로며, 이 뜻을 이어받아 계승한 이가 의암 유인석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의암 유인석의 시를 통하여 당시의 교화 또는 개화파 논리에 대하여 우려하고 그의 서양관을 화이적 관점에서 알아 본 것으로 抄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암은 왜양식의 개화현상을 보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今日維新守舊」 등 10수의 시에서 개화로 인해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 서양문물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하고 있다. 둘째, 그의 시에 서양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洋曆二首」 등 9수의 시에서 서양의 책력, 종교, 과학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짙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그가 지은 「宇宙問答」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시와 더불어 의암의 서양인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의암은 倭洋으로 개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서양에 대하여 화이적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그와 뜻을 같이하는 수구적 유림들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의암, 유인석, 화서, 화이론, 우주문답

## I. 서론

당시 의암이 살았던 시기는 사회적으로는 민란, 동학농민운동 등 내홍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서구열강들의 강력한 개항요구와 일본의 집요한 식민정책으로 인하여 국권은 시나브로 소멸되어갔고, 급기야 을사늑약, 한일합방을 거쳐 경술국치라는 오욕의 자취를 우리의 역사에 남겼다.

이 시기에 斥邪運動으로 한 평생을 받친 사람 중의 하나가 의암 유인석(1842-1915)이다. 의암 유인석은 이항로-김평묵-유증교로 이어지는 화

서학파의 正統道脈을 승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스승의 학문을 답습하고 그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뜻을 그가 잘 수행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의암이 척사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1866년 병인양요 때 斥和戰守論을 펼친 화서 이항로를 도우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생을 마칠 때까지 선봉에 서서 外敵과 맞서 싸웠는데, 특히 을미사변 후 일으킨 擧義擧兵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 그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국내외를 드나들면서 척사에 온 힘을 기울여 활동하면서 위대한 족적을 남겨 놓았다.

이처럼 의암이 죽음을 무릅쓰고 척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수구적 유학자로서 개화파들과의 정책적 갈등을 겪으며 느낀 交和, 開化에 대한 우려와 화이적 시각에서 바라본 서양인식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암이 교류·개화파들의 개혁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한 우려를 어떤 논리로 반교화, 반개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華夷的 시각에서 보는 서양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그의 시에 그의 저서 「宇宙問答」을 참고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II. 동아시아의 개방,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서양인식 차이

### 1. 서구열강 동아시아 진출과 개방

영국의 산업혁명이 19세기에 들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과학의 발전이 새로운 생산기술에 이용됨으로써 상품생산이 더욱 대량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본이 集積되고 경제구조상 독점적 지배구조로 변하면서 소비시장의 확대가 더욱 필요했고, 원료 공급처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유럽

국가 간 경쟁은 위험부담이 크고 자원의 양도 비등함으로써 여러 판단 하에 신대륙이나 동양으로 진출 한 것으로 보인다.<sup>1)</sup> 그래서 그들은 조선, 중국, 일본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동양 삼국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시장개방과 자원약탈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중국은 18세기 때 최고의 전성기였다. 유럽으로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수출하여 경제적 호황을謳歌하였고, 문화적으로도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 중국의 경제가 불황에 빠져 백성들의 삶은 점점 곤궁해져 갔다. 이때 1832년까지 중국무역의 독점권자인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산 목화와 아편을 중국으로 밀수,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비단, 도자기, 차 등을 구매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황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편에 빠져들어 아편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것이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청나라는 영국 상인의 아편을 몰수하고 밀수를 금지시켰지만 영국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 강력한 개항요구로 1842년 남경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 후 미국, 프랑스와도 1844년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굴욕적인 개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구열강들의 진출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자 서양의 함선들은 일본해역으로 출몰하여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에도막부는 쇄국정책으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서구열강들은 일본 개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강하게 압박하였다. 결국 에도막부도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의 강력한 개항요구로 이듬해 미·일화친조약을 맺어 개항하였고, 1858년 제차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치외법권 등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된다. 이어 영국, 프랑스 등도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그들도 미국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의 정세는 더욱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반만년의 우리역

1) 박용환, 『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p.20.

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서구의 개방 압력이 대단하였다. 여기에다가 다수의 수구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이념과 전통을 고수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소수의 교류와 개화 성향의 지도자들과 정치·사회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특히 중화와 자신들을 일체화 시킨 수구적 성향의 학자들에게 있어 개화는 중화를 버리는 동시에 그런 자신들의 의식과 실제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sup>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몇몇 사건만 열거하더라도 국가의 운명이 얼마만큼 위태로웠는가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농민운동이다. 서북지방의 지역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을 시발로 철종과 고종이 집권했던 80여 년간 전국의 40여 지역에서 농민의 봉기가 끊임이 없었다. 특히 1862년 진주농민, 개령농민봉기는 가혹한 조세부담과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한 것이었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조선봉건사회 해체기의 문제를 변혁하려 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의 부패와 백성들 간의 갈등을 짐칠 수 있다.<sup>3)</sup>

또한 고종의 등극과 함께 흥선대원군의 등장이다. 그가 집권하면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화양동 서원을 비롯한 서원 등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것들을 몰락시키고 철폐하여 이에 따른 반발도 매우 거센 상황이었다. 여기에다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맞아 항거하였지만 위태로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875년 雲揚號 사건을 맞으면서 나라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운양호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해 군사력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朝日守護條規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어 1884년 負日세력 김옥균, 박영효 등의 甲申政

2)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정치사상연구』 제9집,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p.39.

3) 송기섭, 「의암 유인석 시에 나타난 척사의식과 현실대응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제61집, 중앙어문학회, 2015, p.204.

變, 1894년 온건개화파 김홍집, 김윤식 등의 등장으로 甲午改革과 1895년 乙未事變, 단발령, 을미개혁으로 이어지며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 후 일본의 내정간섭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결국 국권이 상실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 2. 조선과 일본의 서양인식 차이

조선은 수구적 유학자를 중심으로 서양에 대한 견해를 華夷(尊華洋夷)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의미이다. 華夷사상은 공자가 지은 『春秋』의 ‘尊周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尊周論’은 곧 ‘春秋大義’이고 이것이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명분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조선의 유학자 중 대부분이 中華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洋擾가 연이어 일어났을 때 관료사회에서는 戰守할 것이냐, 交和할 것이냐 라는 양론으로 맞서긴 했으나 華夷사상의 유학자가 중심인 戰守派가 득세하여 그들의 개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또한 운양호 사건 이후에도 守舊할 것이냐, 開化할 것이냐의 갈등으로 甲論乙駁하는 양상이었다. 이 때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파가 득세하였고, 갑신정변부터 을미개혁까지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고 우리의 전통을 무시함으로써 수구파의 반발과 저항이 대단하였다. 이러한 반발과 저항은 화이적 사고에서 비롯되었고, 의암 유인석의 을미년 擧義擧兵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당시 서양에 대한 인식을 華夷의 차원에서 인식한 대표적인 학자가 화서 이항로이다. 화서는 그의 어록 『華西雅言』에 “중국의 도가 망하니 오랑캐, 금수가 왔다. 북쪽의 러시아는 오랑캐이니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서양은 금수이므로 말할 수조차 없다.”<sup>4)</sup>라고 할 정도로 서양에 대하

4) 李恒老, 『華西雅言』 卷10, 「尊中華」.

여 엄청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병인양요가 발발했을 때 자신의 斥和戰守論을 관철시키고 洋賊에 강력히 대항했던 것이다.

이 때 스승 화서를 도와 척화운동의 길로 들어선 이가 의암 유인석이다. 그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華夷論者였으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생을 마칠 때까지 척사운동을 주도했다.

스승 화서의 華夷사상에 대하여 그는 “중화가 고귀하고 이적이 천한 것은 천하 고금의 정한 이치요, 존화양이는 변할 수 없는 법도이다. 천하의 정한 이치를 밝히고 천하의 변치 않는 법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승의 의리가 되고 나 또한 스승을 이어 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라고 하여 스승의 華夷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암은 華夷觀을 華와 夷의 대조를 통해서 스스로를 華脈의 계승자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의 척사론은 서양과 일본을 배척하는 倭洋一體로 전개된다.<sup>6)</sup> 특히 면암 최익현과 더불어 倭洋一體를 주장하였고, 의암은 을미사변 후 擧義하여 日兵과 官兵에게 강력한 대항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당시 면암이나 의암처럼 조선의 수구적 학자들도 華夷論을 명분으로 서양을 대함으로써 결코 그들에게 호의적일 수 없었다. 이에 경직된 태도로 서양의 물결에 맹렬히 거부하는 것이 수구적 유학자로서는 당연한 지조였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서구열강에게 개방한 이후 우리와는 달리 이들의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여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계기로 삼았다. 일본이 서양의 물질과 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영국함대와 싸워 패배한 후 막부정권이 망한 후이다. 막부[에도]정권은 기본적으로 쇄국정책을 펴고 있어 나라를 개방하는데 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막부정권은 15대 쇼

5) 柳麟錫, 『국역의암집』(제천문화원, 2009.) 地, p.644, “華貴夷賤 天下古今之定理也. 尊華攘夷 天下古今之常經也. 明天下之定理 守天下之常經 是吾師之爲義 而吾亦承師而有爲也.”(『毅菴集』 卷32, 「雜著·散言」.)

6) 윤대식, 「의암 유인석의 척서와 실천」,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1호, 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p.76.

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大政奉還<sup>7)</sup>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천황에게 넘기면서 막을 내렸다.

이에 메이지정권이 들어섰고 천왕중심의 국가를 수립하면서부터 서양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였다. 1868년 수립된 메이지정권은 쇄국정책을 썼던 막부정권과는 달리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업화에 온 정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개방 후 수입제품이 급증하였지만 당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물건들을 값싼 노동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모방하여 만들게 함으로써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었고, 이로써 일본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서구의 열강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자본은 군사력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이것의 결과가 征韓으로 나타났다.

에도정권이 무너지고 천왕 중심의 메이지정권이 탄생하는데 큰 영향을 준 학자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이다. 그는 에도막부시대 말기 학자이며, ‘一君萬民論(천왕 중심의 정권)’을 주창함과 ‘征韓論’을 부르짖은 사람이다. 특히 그는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후에 그의 제자들이 메이지정권의 주역이 되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征韓을 주장했고, 征韓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미우라 고로 등이 바로 그의 제자들이다.

그는 1858년, 尊王攘夷를 주창하다가 에도막부의 마나베 아키카쓰의 암살음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혔고, 이듬해 사형판결로 참수되었다. 그 후 요시다 쇼인의 많은 제자들이 메이지정권 시대에 정권을 이끄는 정치가로 등극하였는데, 그들이 거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창한 尊王攘夷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메이지정권에 참여하여 서양 문물의 수용을 부국강병책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7) 1867년 11월 9일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것을 선언한 정치적 사건임. 요시노부는 일본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 1603-1867]의 마지막 쇼군[將軍]. 본명은 도쿠가와 게이키.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하여 메이지 유신(1868)의 달성에 큰 역할을 함.

것은 요시다 쇼인의 가르침과 무관치 않다고 여겨진다.

### Ⅲ. 反開化 논리와 화이적 서양인식

의암의 倭洋式 개화에 대한 우려와 화이적 서양관이 그가 지은 「宇宙問答」에 잘 나타나 있다. 華夷的 관점에서 서술한 「宇宙問答」은 서양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윤리, 교육 등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의 여러 제도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개화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서양의 문물로 인하여 중화유교와 우리의 전통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하여 반개화의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서 의암의 서양에 대한 深大한 識見을 발견할 수 있고, 개화에 대한 그의 입장이 단호함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에 反開化的이고 서양에 대한 그의 인식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가 여러 편 보인다. 여기에서도 개화로 인한 폐단을 몹시 우려하고 있으며, 서양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윤리, 교육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를 중심으로 살피고, 여기에 「宇宙問答」에서 밝힌 그의 견해를 더하여 본다면 그가 반개화와 화이적 서양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1. 倭洋式 개화에 대한 우려와 반개화 논리

의암은 倭洋의 제도와 문물이 들어와 우리사회를 잠식해 가는 현실과 급속히 변해가는 세태를 보면서 몹시 걱정하고 있다.

그의 시 「今日維新守舊」의 두 수에서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有舊生新新本舊    옛것에서 새것 나고 새것은 옛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維新於舊却炎氷    유신은 옛것에 대하여 불과 얼음처럼 반대하네.

舊從萬古新今日    옛것은 유구하나 새것은 오늘 뿐인데  
 果宜今是古非稱    과연 오늘이 옳고 옛날이 그르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암은 法古創新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維新은 ‘法古’를 무시하고 ‘創新’만 부르짖는 개화파의 정책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즉 개화라는 명분으로 서구적[倭洋一體] 문물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斷髮과 服變, 태양력 사용과 일본식 관제개편 등을 도맥과 중화전통의 보전을 부정함은 물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망가지게 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비록 구범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개화 후에 일어난 일이다. 개화를 한다면서 국모를 시해하고 군부를 폐하며 인륜을 무너뜨리고 법률과 기강을 문란케 하고 나라를 팔아 결국은 나라가 망함에 이르렀다. (중략) 비록 수구인들을 탓하지만 국모를 시해하고 군부를 폐하고 나라를 팔아 망하게 한 것은 개화인들이 한 짓이요, 망국을 애통해 하며 순절하며 의거한 자는 모두 수구인들이다.”<sup>8)</sup>라는 논리이다. 이처럼 그들의 개화정책이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華夷人獸且無說    중화와 이적, 인간과 금수는 말할 것 없다만  
 惡舊好新底性情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함은 무슨 심성이냐.  
 務爭時代崇治世    쟁탈에 힘쓰는 시대엔 치세를 숭상해야 하는데  
 孰是文明與泰平    어느 것이 문명이고 태평이더냐.<sup>9)</sup>

그래서 「今日維新守舊」 其一에서는 유신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其二에서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화로의 治世가 우선임을 강조

8)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89, “其雖曰舊法亡國 亡國在行開化後也. 曰爲開化 而其所爲也 弑國母廢君父 乖倫常敗法綱 賣國而至於國亡 … 其雖咎守舊人 弑國母廢君父 賣國而亡國 皆自開化人而爲之也 痛亡國而爲之殉節 爲之舉義 舉多自守舊人也.”(『毅菴集』 卷51, 「宇宙問答」.)

9)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12. (『毅菴集』 卷2, 「今日維新守舊」.)

하고 있다. 즉 서구의 쟁탈로 위태로워지는 유신[개화책]보다도 중화를 보전하여 국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세에 交錯할 것이 아니라 斥邪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척사의 이유이고 유신을 반대하는 논리이다. 그래서 개화는 예악문물의 정통성이라는 문화전통을 이탈<sup>10)</sup>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의암이 인식하고 있는 문명은 물질·육체적 생활의 편의와 발전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적 도덕과 윤리중심의 공·맹의 도를 실천하는 것<sup>11)</sup>을 말하는 것이다. 문명보다는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스러움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정세와 사회의 환경이 그가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흐르고 있지 않음에 그의 심정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한 심정이 「憫世」二首에 나타난다. 其一에서는 表裏不同한 그들의 행태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曰愛我韓疆彼倭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왜놈이 원수라고 말하지만
倭頭倭口倭全身	머리도 왜놈, 입도 왜놈, 온몸이 왜놈일세.
身頭口倭兼政學	몸과 머리와 입이 왜놈에다 정치와 학문까지 겸하고
獨不倭腸難必眞	다만 속심은 왜놈이 아니라니 진심이라고 보기 어려워라.

이 시에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말로는 애국을 외치지만 모습은 물론 사상마저도 왜국을 추종하고 있다. 또한 개화세력의 뜻에 동조하는 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암의 근심이 보이는 듯하다. 특히 승구와 전구처럼 斷髮과 服變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의암은 “상투를 트는 것과 옷을 입는 법은 上下·天地와 서로 관계하여 만물 가운데 적절하게 드러나 있다. 안

10) 윤대식, 「한국위정척사의 보수옹변」, 『한국인물사연구』 제21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p.398.

11) 송준호, 「위정척사파시의 사상적 특질」, 『한국문학연구』 제1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2, p.10.

으로는 덕성과 더불어 서로 조화되고 밖으로는 윤리·예의와 더불어 서로 어울리니, 높도다! 그 정제되고 엄숙함이어. 밝도다! 그 현저히 드러나 밝고 성함이어. 위대하도다! 그 소중히 여겨 사람됨을 얻음이어.”<sup>12)</sup>라고 하여 의암은 衣·髮문제가 道脈을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였던 것이다.

道國人身同所愛	도리와 나라, 남과 자신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獨身是愛忘其餘	자신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잊는구나.
身有立身利身事	자신은 자신의 세움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取輕舍重又何歎	경시할 것을 취하고 중시할 것을 버리니 이 또한 무엇이냐. <sup>13)</sup>

其二에서는 衣·髮·學이 倭를 따르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만을 위한 입신출세에 눈멀고, 호의호식만을 쫓는 자들을 보면서 개탄하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取輕舍重’한 사회적 풍조가 만연하였음을 말하고 있어 우리 국가의 현실에 대한 암담함마저 보여준다.

다음의 시에서 ‘取輕舍重’한 사회적 현상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受之父母得之天	부모에게서 받고 하늘에게서 얻고
矧復制從神聖傳	더구나 제도는 성인에게서 전한 것이라.
背聖逆天忘父母	성인을 저버리고 하늘을 거역하고 부모도 잊으니
此何人理乃其然	이것이 무슨 사람의 도리이기에 마침내 그러한 것이냐. <sup>14)</sup>

의암이 바라는 사회는 道에 의한 실천으로 인간된 도리를 행하는 사

12)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62, “髻髮法服 上下與天地相係關 而中表出於萬物 內而興 德性相維持 外而與倫理禮儀相周旋 崇崇乎其整齊嚴肅 章章乎其宣著明盛 偉乎其重之 得其爲人也.”(『穀菴集』 卷51, 「宇宙問答」.)

13)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13.(『穀菴集』 卷2, 「憫世」.)

14)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3.(『穀菴集』 卷2, 「大悶四首」 其四.)

회이다. 즉 하늘에 순응하고, 성인의 제도를 본받아서 실천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풍토가 조성된 사회인 것이다. 그는 “理로써 말하면 하늘이 인간에게 命을 내리고 인간은 하늘로부터 性을 받는데, 성인은 性을 다하여 天命에 이르러 하늘을 본받고 짝하니, 聖은 곧 天이며 道는 하나다. 크게 하늘에 화합하려는 것을 聖이라 하며 성스러우나 알지 못하는 것을 神이라 한다. 따라서 비록 神으로서 말하더라도 성인이 곧 神인 것이다.”<sup>15)</sup>라고 하여 ‘聖則神’이라는 觀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背聖逆天忘父母’한 현실을 마주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개화로 인하여 ‘奉聖順天養父母’를 못함으로써 일어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서양 종교, 즉 예수교의 변성에 있음을 「大悶四首」에 덧붙인 「又一首」에서 지적한다.

聞說耶蘇曰敬天    듣건대 예수도 하늘을 공경하는데  
 髮從天得是昭然    머리털도 하늘이 준 것이 분명하여라.  
 敬天宜愛天從得    하늘을 공경하면 하늘에게서 얻은 것을 아껴야지  
 哀彼教徒狂且顛    저 예수교도들 광란에 전복됨이 애처롭구나.<sup>16)</sup>

그가 예수교의 변성에 매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서양을 사모하고 예수의 학문을 배운다면 서양의 性情으로 변할 것이다. 중국과 조선의 性情이 서양의 성정으로 변하게 되면 善이 不善으로 되어 善하지 못한 것에 化하게 되고, 서양의 性情으로 化하게 되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자가 적어서 결국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중략)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 것인가? 그 극심한 禍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sup>17)</sup>고 하

15)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95, “以理則天以命于人 人以性於天 聖人之爲盡性至命 體天而配天 聖即天而道一也.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雖以神言 聖人是神者也.”(『毅菴集』 卷51, 「宇宙問答」.)

16)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4.(『毅菴集』 卷2, 「又一首」.)

17)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93, “今慕西洋而學耶蘇之學 則化西洋之性情 以

여 우리의 性情이 서양의 性情으로 변하게 되어 이것이 극심한 禍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道가 소멸됨으로써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마저 개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의암이 우려하는 개화에 대한 결과를 「開化言論」에서 읊고 있다. 개화의 끝은 우리의 정신이 서양의 성정으로 개조되는 것이고 이로써 孔·孟·堯·舜도 무시당하는 참담한 세상으로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文明夢覺昏沈是	문명 꿈속에서 깨어나니 어둡고 침침하여
平等自由禮讓無	평등과 자유에 예의범절마저 사라졌네.
罔極也人罔極世	망극하구나! 인간도 세상도
低看孔孟小唐虞	공맹도 깔보고 요순도 무시하네. <sup>18)</sup>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孔·孟도, 堯·舜도 무시당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聖은 곧 天이며 道는 하나다.’라고 한 것처럼 聖·天·道가 일체여서 성인을 업신여기면 하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道가 지켜지지 않는 부도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倭洋式의 개화로 인한 것이며, 개화에 동조하는 세력의 만행 때문이라는 그의 외침이다.

그 뿐만 아니라 「閼新學」에서는 임금도, 아버지 무시하는 사회적 사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신학문을 한 결과가 不忠·不孝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無君無父是云學	임금도 아버지 무시함을 학문이라 할 수 있을까.
埋沒其人姑置之	그런 사람들 매몰하여 버려야 하네.
却怪爲君爲父者	임금과 아버지를 위하는 자를 괴이하게 여기고
無君無父勉他爲	임금과 아버지 무시하는 일을 남에게 권면하누나.

中國朝鮮之性情 化西洋之性情 善化乎不善化乎 不善化矣 其爲化西洋之性情 則鮮有不心奪於彼而爲作彼人也. … 且將至何境 其爲最極大禍 不可究說而盡也.”(『毅菴集』 卷51, 「宇宙問答」.)

18)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3. (『毅菴集』 卷2, 「開化言論」.)

신학문은 인륜의 도리를 위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形氣上의 일만 구하여 욕심만 채우는<sup>19)</sup> 교육이기 때문에 임금도, 아비도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권면할 수 없는 교육을 권면하는 사회분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新熾清燒天下了    새로운 불꽃이 천하를 깨끗이 태워도  
胡無彼監警宜人    어찌하여 저들을 살피고 경계하는 사람이 없는가.  
忠告中華百世主    중국의 백대 군주에게 충고하노니  
新非新命禍維新    신학은 신혁명이 아니라 재앙의 유신일세.<sup>20)</sup>

그렇기 때문에 「憫新學」其三 결구에서 신학문은 혁명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만 키우는 부질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憫新學」其一의 시에서 신학문은 ‘無君無父學{임금도 아비도 무시하는 학문}’의 결과가其三의 시 결구에서의 ‘禍’이다. 여기에서 학문에 대한 의암의 사고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륜을 밝혀야 학교’라는 인식인데, 신학교의 신학문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앞에서 다룬 衣·髮·學·教 뿐만 아니라 다음의 시에서는 우리가 전통적 책력인 음력을 왜력인 양력으로 개편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有倭無韓矣    왜국만 있고 대한은 없으니  
臘云是正元    설달을 정초라 하는구나.  
兩宮孤悒悒    양궁은 외롭게 근심만하고  
五爵胥欣欣    오작을 받은 자들 서로 기뻐하는구나.  
獨發天涯哭    외로이 타국에서 통곡을 하니  
誰伸國內寃    국내의 원한을 풀어줄 이 누구인가.

19)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63.(『毅菴集』 卷51, 「宇宙問答」.)

20)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313.(『毅菴集』 卷3, 「憫新學」 其一·其三.)

華東萬世則 중국과 우리나라 만대의 법칙은  
行夏仲尼言 음력을 쓰는 것이 공자의 말이었다네.<sup>21)</sup>

그야말로 일본의 식민정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때 왜국의 연호인 ‘明治’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1910년 7월 2일이고 한일합방조약이 1910년 8월 22일 조인되어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신민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리고 1910년 10월 7일 일제는 ‘조선 귀족령’을 제정하여 이완용을 비롯한 한일합방에 공로가 있는 관료 76명에게 귀족의 지위를 수여했던 것이다. 따라서 함련에서의 “五爵胥欣欣”이라는 구절로 보아 이 시를 지은 時點이 10월 7일 이후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본식 책력으로 개편되었을 때가 1895년임을 감안한다면 미련의 “華東萬世則”이 무너지면서 망국으로 치닫는, 즉 이때가 망국으로 가는 시점이 되고 쭉 진행되어 이 나라가 日本臣民이 되는데 공이 있었던 자들에게 귀족지위를 수여하는 날이 망국의 종점이 된다. 따라서 의암은 “行夏仲尼言”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의암에게 있어 나라가 망하고 난 뒤 모두가 ‘그래. 공자의 말이 맞았어.’라고 말하는 날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금까지 衣·髮·學·教·曆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암이 개화를 겪으면서 나라가 치욕을 맛볼 때까지 그가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다. 衣·髮 문제, 學·教 문제, 冊曆 문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는 논리이다. 그래서 의암은 이에 대한 우려가 깊다. 「宇宙問答」에서도 “그들이 비록 구법이 나라를 망친다고는 하나 나라가 망한 것은 개화 후에 일어난 일이다.”<sup>22)</sup>라고 하였는데, 시 「聞國行倭曆 以臘

21)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18.(『毅菴集』 卷2, 「聞國行倭曆 以臘吉爲元朝爲發痛哭」.)

22)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589, “其雖曰舊法亡國 亡國在行開化後也.”(『毅菴

吉爲元朝 爲發痛哭」을 1910년 경술국치일 이후에 지었고, 「宇宙問答」을 저술한 해가 1912년이었으므로 이미 亡國한 상태였다. 이로써 의암은 초지일관 ‘倭洋式 開化는 곧 亡國이다.’라는 논리가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던 것이다. 여기서 의암이 개화의 대적점에 서서 반개화의 논리를 펴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 2. 의암의 화이적 서양인식

을미개혁(1895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책력인 음력 대신 태양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유림들의 반발이 거세었는데, 의암 또한 양력사용의 부당성을 시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望弦朔晦故稱月	보름달 반달 초하루 그믐이어서 달이라 불렀으니
人事求宜所貴書	인간 일에 마땅함을 구하려 역서를 귀하게 했기 때문이다.
月失當然闕人事	달을 잃으니 당연히 인간 일도 이지러지는 것
頭頭無據意何居	은 사물에 근거가 없는데 의미가 어디에 있으리오. <sup>23)</sup>

의암은 “음력은 달의 초하루, 보름과 차고 이지러짐에 의거해서 월을 세우고 계산한 것이다. 오늘날 양력은 달의 계산에 근거가 없다. (음력은) 태양의 운행을 日로 삼고, 달의 운행을 月로 삼으며, 하늘의 운행을 해로 삼는다. 일 년과 달수를 계산해서 윤달을 두니 이것이 공평하고 적절하다.”<sup>24)</sup>라고 하여 음력은 인간 일에 마땅함을 구하려 한 것인데 태양력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일도 이지러지고, 또한 한 달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 책력으로써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集』卷51, 「宇宙問答」.)

23)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1.(『毅菴集』 卷2, 「洋曆二首」 其一.)

24)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52, “陰曆據月之朔望弦晦 建月以數之也 今其陽曆之爲數月無據也 周日而爲日 周月而爲月 周天而爲歲 歲與月計而爲置閏 是平當矣.”(『毅菴集』 卷51, 「宇宙問答」.)

서양의 종교에 대하여서도 논하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天理에 의한 도를 구현하는 것이 초점이라 한다면 서양의 종교는 그러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五倫之義九疇法	오륜의 도리와 홍범구주 법칙을
影響焉曾眼耳邊	일찍이 눈과 귀에라도 영향을 받았는가.
天主耶蘇教甚事	천주와 예수가 어느 일을 가르쳤기에
無天道理有言天	하늘의 도리 없이 하늘을 말하고 있네. <sup>25)</sup>

의암은 기독교의 변성함에 대하여 묻자 “기독교의 변성은 중국과 조선에 극심한禍이니 다시 변론할 필요가 없다.”<sup>26)</sup>고 대답할 정도로 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空虛하고 無用한 것이어서 서양 사람들마저도 가볍게 여긴다고 말한다. 이에 결구에서 기독교는 “無天道理有言天”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늘 섬김에 대하여 “克己復禮하여 욕심을 막고 天理를 보존함이 하늘을 섬기는 일인데, 저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天堂地獄과 減罪邀福의 말만 한다. 오륜의 가르침을 좇아 克己復禮하여 天理를 보존하는 것을 道라 하겠는가? 아니면 天堂地獄과 減罪邀福을 道라 하겠는가?”<sup>27)</sup>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의 종교적 견해를 읽을 수 있다. 즉 의암은 天理의 보전을 道라 하고, 이를 실천하며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天主耶蘇教[기독교]는 天堂이나 地獄이나를 논하고 減罪邀福만을 비는 이기적 삶에다가 하늘의 도리조차 모르는 종교라고 여기고 있다. 바로 의암의 華夷의 사고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25)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1.(『毅菴集』 卷2, 「洋教」.)

26)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95, “盛爲耶蘇學 爲中國朝鮮最極大禍 而亦無用可辨.”(『毅菴集』 卷51, 「宇宙問答」.)

27)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96, “克己復禮 遏欲存理 所以事天也 彼則有是 否 不過云云天堂地獄 減罪邀福之說也 五教執中 克復遏存 可曰道之云乎 天堂地獄 減罪邀福 可曰道之云乎.”(『毅菴集』 卷51, 「宇宙問答」.)

데, ‘行道者人 不行道者獸’의 논리로 비교함으로써 서양의 종교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서양의 지동설에 대해서도 「洋人言天靜地動」에서 이들의 주장이 매우 부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以天爲靜地爲動	하늘이 가만히 있고 땅이 움직인다니
曾爾見親摩驗來	네가 친히 만져서 검증했더냐.
動靜看他男女性	움직이며 가만히 있는 것은 저 남녀의 특성을 보라.
肖之天地物然哉	천지를 닮아서 사물이 그러하겠지.

“무릇 氣는 움직이고 形은 그치므로 하늘은 氣이고 땅은 形이다. 무릇 만물도 남자는 배풀고 여자는 받으며 남자는 움직이고 여자는 고요하니 만물은 천지를 본받은 것이다.”<sup>28)</sup>라고 하여 하늘을 氣로, 땅을 形으로, 그리고 남자를 氣로, 여자를 形으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천동설을 말하고 있다. 즉 氣는 動하고 形은 靜하기 때문에 天動地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지동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여기에는 중화와 성인을 욕보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믿고 있다.

計出凌華壓聖爲	의도가 중화를 능욕하고 성인을 누르려고
誣言天地尙無知	하늘과 땅을 속여 말하니 더없이 무지하구나.
怪來痴獸滔滔輩	괴이하도다! 미련하게 날 뛰는 무리들이
自小自罔爭叫奇	스스로 소인 짓하며 스스로 속이며 기이함을 다투어 외치네. <sup>29)</sup>

“지동설을 볼 때 허망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심히 번거롭고 어렵다. 천지의 올바른 이치는 진실로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한심하구나! 동양 사람들이 어리석어 이것을 믿고 의혹에 빠지고 있으니 (후략)”<sup>30)</sup> 라고 말

28)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52, “夫氣行形止 天氣而地形也 夫萬物皆男施而女受 男動而女靜 萬物肖天地也.”(『穀菴集』 卷51, 「宇宙問答」.)  
 29)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2.(『穀菴集』 卷2, 「洋人言天靜地動」.)  
 30)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52, “見其爲說 虛妄且置 亦甚煩難矣 天地正理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서양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동설은 ‘凌華壓聖’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믿고 이에 동조하는 동양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지동설이 정설이 되었지만 당시 天動이나, 地動이냐의 논란을 엿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진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서양교육의 현실과 서양교육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당시 신식교육기관으로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新式學校들이 이곳저곳에서 빠른 속도로 설립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신학교 불가론을 읊고 있다.

所稱學校明人倫	학교는 인간의 윤리를 밝히는 곳
盡滅人倫尙爾云	인류를 멸하고도 학교라 하느냐.
凌罵乃先父祖事	네 조상을 능멸하는 일을 하고서
搖頭轉目曰維新	머리 흔들며 눈을 부라리며 유신이라니. <sup>31)</sup>

이 시에서 학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즉 ‘明人倫’을 하지 않고서는 학교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宇宙問答」에서 “무릇 천하에는 오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름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맹자가 말하기를 ‘학교는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 인륜이 위에서 밝으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친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인륜을 밝혀야 학교라 할 수 있다.”<sup>32)</sup>고 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학교는 “形氣上의 일만 추구하여 욕심을 채울 뿐이다. 윤리에 있어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어긋나니 어찌 학교라 할 수 있겠는가?”<sup>33)</sup>라고 하여 明人倫의 역할을 하지 않고 形氣上

實簡易也 慨矣東人之愚癡而有信惑也.”(『毅菴集』 卷51, 「宇宙問答」.)

31)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2.(『毅菴集』 卷2, 「新學校」 其一.)

32)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63, “夫天下無一無五倫之人 無一外五倫之人也 孟子曰學校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明人倫 可曰學校.”(『毅菴集』 卷51, 「宇宙問答」.)

33)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63, “求盡於形氣上事而窮其所欲而已 其於倫理 不惟不爲 未始不相背也 豈可學校之謂哉.”(『毅菴集』 卷51, 「宇宙問答」.)

의 일반 추구하는 서양식 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역할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轉結句에서처럼 서양교육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고 있다.

또한 학교는 ‘明人倫’하는 것만이 아니라 ‘成人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양의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古之學校成人材	옛날의 학교는 인재를 키웠는데
今敗人材正可哀	지금은 인재를 망치니 슬픈 일일세.
大廈木求山濯濯	큰 집 짓는 나무를 민둥산에서 구하려한다면
三年蓄艾尙宜哉	삼년 묵은 쭉이 마땅하리라. <sup>34)</sup>

앞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서양의 학교는 그 역할이 形氣만을 추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인륜의 도리를 경시하게 되어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지 못하는 교육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은 결국 이 시의 전·결구에서 말하고 있듯이 민둥산에서 대들보를 찾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의암은 서양식 학교의 교육에 대한 허구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교육적 정서를 잃고 서구화 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秦나라를 배우면 秦같이 되고, 楚나라를 배우면 楚같이 되며, 倭를 배우면 倭같이 되고, 서양을 배우면 서양같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쪽 나라 사람같이 되고 그 쪽 나라 사람같이 되면 어찌 나라를 위하여 血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보존하기는 어렵다.”<sup>35)</sup>라고 하여 역시 洋式화 된 신식학교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배타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것은 신식학교가 ‘成人材’를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敗人材’를 양성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신교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34)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314.(『毅菴集』 卷3, 「新學校」 其二.)  
 35)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64, “學秦化秦 學楚化楚 學倭化倭 學洋化洋 化之難不爲其人 爲其人 豈能有血心爲國乎 雖有之 難保其皆有也.”(『毅菴集』 卷51, 「宇宙問答」.)

또한 신교육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성교육이다. 당시 이화학당이 설립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의암이 당시 여성교육에 대하여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해진다.

그의 시 「女學校」 其一은 여성교육에 대한 의암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最莫成言女學校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은 여학교이니  
 中東天地忍斯爲    중국과 우리나라의 천지에 차마 이것을 할까.  
 於男平等爭鳴動    남자와 평등이라 다투어 소리치니  
 萬物之中復有茲    만물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있을까.<sup>36)</sup>

여성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앞의 「洋人言天靜地動」에서 밝혔듯이 “무릇 만물도 모두 남자는 베풀고 여자는 받으며, 남자는 움직이고 여자는 고요하니 만물은 천지를 본받은 것이다.”<sup>37)</sup>라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이와 같은 그의 인식을 轉·結句에서 말하고 있는데, 남녀 간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宇宙問答」에 보면 “오늘날 남녀는 마땅히 평등하고 자유라 하면서, 남자도 학교가 있고 여자도 학교가 있어 남녀가 함께 거동을 하니, 이는 하늘과 땅이 높고 낮음이 없는 것과 같다. 땅이 스스로 하늘을 대신하여 이루는 것이 없고, 땅이 순종함이 없이 (하늘과) 동행하려 하면 하늘보다 굳센 것이 된다.”<sup>38)</sup>라고 하여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은 천지만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똑똑한 남편이 성을 쌓으면 똑똑한 아내는 성을 기울게 한다.”<sup>39)</sup>라고 하여 옛날부터 나

36)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315. (『毅菴集』 卷3, 「女學校」 其一.)

37)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52, “夫萬物皆男施而女受 男動而女靜 萬物肖天地也.” (『毅菴集』 卷51, 「宇宙問答」.)

38)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65, “今日男女宜平等而各自由 男有學校 女有學校 男女并發作 是天地可以無尊卑 地可以有成而無代終於天 地可以無順而同行健於天也.” (『毅菴集』 卷51, 「宇宙問答」.)

39) 『詩經』, 「大雅·蕩瞻卬」 시로 폭군 幽王이 褒姒라는 여자를 사랑하여 정사

라 있고 집안 있는 자 치고 똑똑한 여자로 말미암지 않고 패망한 것이 있었던가. (중략)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으로 한 나라에서 암탉이 운다면 어찌 행운이 있겠는가.”<sup>40)</sup>라고 하였으니 起句 “最莫成言女學校”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서양의 병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주된 병기는 弓·刀와 약간의 총포로 무장하고 적과 맞선 상황에서 양포의 위력은 놀라운 것이었을 것이다.

非直傷人滅人是	사람을 상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멸망시키니
不仁到極益求新	어질지 않음이 극도에 달하여 더욱 새 짓거리를 찾는구나.
生物天心人所得	사물을 살리는 것은 천심이요, 사람이 얻는 것인데
物中惡獸決非人	사물 중에 악독한 짐승 결코 사람이 아닐세.

斯不息時人盡滅	이것이 안 멈출 때 사람이 모두 멸망하리니
本心天地見何因	마음이 천지에 근본하고서 본 것은 무엇에서 기인하였나.
那時神聖英雄出	어느 때 신성한 영웅이 나타나서
一手收銷大布仁	한 손으로 거두어 녹여서 어짐을 크게 베풀려나. <sup>41)</sup>

하지만 의암은 이러한 洋砲에 대하여 살생을 위한 무기일 뿐이어서 천지만물의 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生物天心’과 ‘本心天地’에서처럼 천심은 사물을 살리기 위함이고, 마음은 천지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인데 洋砲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악독한 짐승들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오늘날 서양이 병기에 강하며 이미 그 예리함을 다하고도 또 예리함을 궁구하여 더 예리하게 할 수 없는 데에도 더 예리하지 못할까 근심한다. 한 번에 백 명 천 명을 죽이고도 오직 사

를 돌보지 않음을 비난한 시이다.

40)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p.565-556, “哲夫成城 哲婦傾城 自古有國有家者 豈有不由哲婦而敗亡乎. … 牝鷄而晨家索 牝一國而晨 國其有幸.”(『毅菴集』 卷51, 「宇宙問答」.)

41) 柳麟錫, 『국역의암집』 天, p.202.(『毅菴集』 卷2, 「洋砲」.)

람들을 더 잘 죽이지 못할까 근심하니 그들이 병기를 얻은 이래로 사람을 죽인 숫자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 만 명을 동원하여 헤아린다 해도 헤아릴 수 없다.”<sup>42)</sup> 따라서 이것이 멈추어 지지 않는다면 인멸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의암은 가치판단을 과학성, 효율성에 두기보다는 天理와 우주법칙에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암은 서양에 대하여 華夷의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思考는 그의 중화주의적인 측면과 스승 화서를 따라 위정척사운동에 참여하면서 서구인들의 침탈하는 실상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더욱 서양에 대하여 부정적 사고가 심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에 따른 서양사상과 문물의 수용에 있어서도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시로써 표현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양에 대한 의암의 편벽된 비판이 옳은가, 그른가를 저울질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왜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암은 화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강성의 척사적 유학자로서 서구의 침탈을 目睹하면서 받은 충격과 그가 수호하고자 하는 도맥과 중화의 전통이 그들의 사상과 문물로 인하여 시나브로 잠식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서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 IV. 결론

세계정세와 국내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사회참여의 구성원,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이 다를 수

42) 柳麟錫, 『국역의암집』 人, p.577, “西強之於兵器 既極其利 又窮其利 利無有加而惟恨其不利 一舉殺百人千人而惟恨不善殺人 其得兵器以來 爲之相殺 用萬人善數者而計之 莫之計矣.”(『毅菴集』 卷51, 「宇宙問答」.)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戰守할 것이냐, 交和할 것이냐, 守舊할 것이냐, 開化할 것이냐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서 戰守와 守舊를 대표하는 인물이 의암 유인석이다. 따라서 의암이 倭洋式 개화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서양인식에 대하여 편벽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거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倭洋式 개화의 현상을 우려하여 반개화의 논리를 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서양관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本攷에서는 의암의 이에 대한 사고를 그의 시에 「宇宙問答」의 내용을 더하여 倭洋式 개화에 대한 반개화 논리와 서양인식을 살펴 그 이유를 찾아본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암이 바라는 사회의 발전방향은 ‘法古創新’인데, ‘法古’를 무시하고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倭洋式的 개화로 인하여 傾國으로 가는 현상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반개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倭洋式 개화현상이 오히려 나라의 치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즉 개화로 인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암은 그가 보전하고자 하는 도맥과 중화의 전통이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다고 여기고 서양에 대한 華夷的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의암이 倭洋式 개화의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고 이를 반개화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써 서양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암의 반개화 논리와 비판적 서양인식은 춘추대의의 명분에 바탕을 둔 화이사상이 華西 → 重菴 → 省齋를 거쳐 의암으로 이어졌으며, 의암은 이에 입각하여 척사운동을 실천하면서 이러한 논리와 인식을 詩化한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적음으로써 시 속의 생동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주고 있다.

<參考 文獻>

柳麟錫, 『국역의암집』, 제천문화원, 2009.

——, 『毅菴集』.

李恒老, 『華西雅言』.

박용환, 『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송기섭, 「의암 유인석 시에 나타난 척사의식과 현실대응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제61집, 중앙어문학회, 2015.

송준호, 「위정척사과시의 사상적 특질」, 『한국문학연구』 제1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2.

윤대식, 「의암 유인석의 척서와 실천」,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1호, 동양정치사상학회, 2002.

——, 「한국위정척사의 보수응변」, 『한국인물사연구』 제21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14.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정치사상연구』 제9집,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 Abstract

*A Study on Oppose Efflorescence and Views of West in Hwaee-ron  
of Uiam Yu In-seok's Poems / Song Gi Seop\**

Japan objected to the opening to the Western powers influenced by the closed-door policy in Edo period, but entered into a treaty of peace and amity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854 an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with the same country 1858. Likewise, Joseon strongly resisted against the two invasion cases of Korea by a Western power: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and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 but opened even to Japan under the Japan-Korea Treaty of 1876, influenced by the Un-Yang-Ho Accident happened in 1875.

In this process of opening to Western countries, both Joseon and Japan showed the same position of opposing to the foreign countries, but after the opening, their position and awareness of opening and Western powers are clearly different. Joseon recognized the Western powers from the Hwayiron perspective: most of Confucian scholars formed a China-oriented culture and were negative on the opening to other countries. Accordingly, before the Un-Yang-Ho accident, there were two sects: military necessary sect and exchange sect and after the accident, there were extreme conservatives and reformatives. Among the two different forces, military necessity sect and extreme conservatives were much stronger. Unlike Joseon, Japan actively accepted western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Meiji regime and resultingly could grow significantly in terms of economy. Based on the capital accumulated in this way, Japan could improve their military power.

---

\* Sun Moon Univ. / sks4423@naver.com

The representative scholar who had a Hwayiron perspective in recognizing the Western powers was Hwaseo Lee Hang-Ro, who was followed by Uiam Yu In-Seok.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Uiam Yu In-Seok's concern with opening and recognition of the Western powers and his belief to overcome such a phenomenon based on his poetry in order to infer then-social atmosphere. Specifically,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Uiam was too concerned with the phenomenon of opening. He refuted unfairness penetrated into our society by Western products, as shown in 「Geum-Wal-Yu-Sin-Su-Gu」and other 10 poems.

Second, his awareness of the West is well revealed. He had a thick negative view on almanac, religion, and science of the Western society as shown in 「Yang-Ryeok-I-Su」 and other 9 poems. And these same contents are well summed up in his 「Cosmic Question and Answer」, which was very helpful for understanding his awareness of the Western countries with his poems.

Like this, Uiam Yu In-Seok's concern with the opening to the Western countries and Japan and awareness of Western societies are reflecting then-social atmosphere well.

**【Key words】** Uiam, Yu In-Seok, Hwaseo, Hwayiron[Theory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Cosmic Question and Answer

투고일 : 4월 2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